

2007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9월 고2

언 어 영 역

듣기평가 대본

1. 이제 여러분에게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이런저런 과제물에 수행 평가에 시험공부까지....., 정신 없이 지내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바쁘게만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 이따금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선 다시 말을 타고 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말이 지쳐서 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쉬려는 것일까요? 그것 역시 아닙니다. 인디언들이 가끔씩 말에서 내려 자기가 달려온 쪽을 바라보는 것은 혹시 너무 빨리 달려서 자기의 영혼이 미처 뒤쫓아 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이 따라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탄 말이 너무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리느라 영혼을 돌볼 틈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씩은 말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허엽 : 듣건대 이 공(公)이, 지금은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해 주셨다고 하는데,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왜 시기상조란 말이요?

이이 : 의복과 음식이 넉넉한 뒤에야 예의를 아는 법입니다. 근자에 이르러 백성들의 살림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억지로 예를 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잘 살게 한 연후에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허엽 :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소. 허나 고금의 역사로 보건대, 풍속이 어지럽고 인륜 도덕이 땅에 떨어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소. 그러니 당장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렵더라도,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는 향약을 시행하여 백성들을 교화해야 하지 않겠소?

이이 : 예로부터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도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아름다운 풍속을 이룬 적은 없었습니다. 도덕 교화라는 것은 쌀밥과 고기반찬 같은 것입니다. 너무 굶주려서 죽도 소화시킬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제 아무리 맛있는 쌀밥과 고기반찬인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허엽 : 허허, 백성들이 살림살이가 아무리 풍족한들, 예의와 도덕을 모른다면 금수와 다를 바가 있겠소? 오히려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때에 백성들을 교화하여 미풍양속을 진작시켜야 하오. 그러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저절로 넉넉해질 것이오.

이이 : 비록 부자지간이라도, 아들의 굶주림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매질이나 하면서 학문을 권한다면 반드시 의가 갈리고야 말 것입니다. 하물며 굶주린 백성들에게 있어서야 오죽하겠습니까?

3.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윤리적 소비’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소비’라는 말에 ‘윤리’라는 무거운 단어가 붙어 있으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윤리적 소비란 인간과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노동 착취를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정 무역 개념을 근간으로 1990년대 말에 확립된 이념입니다.

공정 무역은 생산국의 농민이나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루어지는 무역 활동을 가리키는데, 윤리적 소비에는 이러한 공정 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일 이외에도 여행지의 자연과 문화를 보존하고 그 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책임 여행이라든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일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여 과소비를 조장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광고나 판촉 활동에 현혹되어 단지 싸다는 이유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구매했다가 제대로 쓰지도 않고 버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버려진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훼손하겠지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비나 과소비를 자제하는 것도 윤리적 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짓 하나, 발걸음 하나가 주변의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 환경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소비자가 돼 보는 건 어떨까요?

【4-5】 이번에는 인터뷰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자 : 바쁘신 가운데도 새 책을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이번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분석한 책을 내셨는데요, 이전의 책들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 같네요.

남자 : 네, 그 동안에는 주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전통문화의 요소들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그간의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하나로 꿰어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했습니다.

여자 : 이번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우리 문화의 각 영역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과연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를 섭렵한다는 게 학문이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연구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남자 : 예, 사실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지식이 짧아서 무척 힘들긴 하더군요. 하지만, 다소 거칠고 범박한 느낌을 주더라도 우리 문화의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자 : 이번 책에서 사용한 핵심적인 개념이 ‘프랙탈’이라는 것인데요, 이게 좀 생소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남자 : 네, 프랙탈은 1975년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발견한, 새로운 기하학의 원리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다도해의 해안선이나 계곡, 소나무, 난류, 구름 등과 같이 불규칙해 보이는 대상에 내재된 질서를 찾아내는 새로운 수학의 개념입니다.

여자 : 바로 그 프랙탈이라는 개념을 우리 문화의 분석에 적용하셨지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번 책을 통해 그간에 있었던 어떤 편견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프랙탈 기하학을 도입하게 된 것은, 규칙적이고 정형적인 것을 추구해 온 근대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우리 전통문화를 재평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질서에 집착해서 반듯한 것, 직선적인 것이 가치 있다는 생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낮게 평가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프랙탈 기하학의 관점에서 보면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어떤 질서가 내재해 있다는 점을 밝혀 낼 수 있거든요.

여자 : 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새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